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④ 06. ①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④ 19. ③ 20. ②

1. 장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장자이다.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진인(眞人)을 제시하였으며 수양 방법으로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과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를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장자는 시비의 분별을 초월하여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지향하였다.
- ② 장자는 만물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이 평등함을 주장하였다.
- ③ 불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④ 순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순자는 예를 배우고 익혀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이다.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행복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이다.
- ④ 벤담에 따르면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으며 쾌락의 양은 쾌락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벤담의 입장에서 쾌락을 동일한 양을 지닌 다른 종류의 쾌락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에피쿠로스와 벤담은 모두 쾌락과 고통의 계산은 경험뿐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모든 악행의 원인이 무지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② 프로타고라스는 시대나 사회를 초월하여 받아들여지는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한 시대나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규범은 있다고 보았다.
- ④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의 입장이며 이에 따르면 참된 앎이 곧 덕이고,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 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입장으로 행복을 위해 절대적 진리를 얻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지 않았다.

4. 키케로와 스펜서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키케로, 을은 스펜서이다. 스펜서는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투표는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키케로에 따르면 국가란 인민의 결사체이며 이러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 ② 키케로는 국가를 목적 그 자체라고 보지는 않았다.
- ④ 스펜서는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⑤ 스펜서는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5.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천리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라고 보았으며 치지, 곧 치양지는 양지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행합일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주희는 앎과 실천의 경중을 논한다면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주희는 현실의 구체적 사물에서 천명지성은 기질지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은 격물(格物)의 물(物)이 도덕적 실천 대상이라고 보았다.
- ⑤ 마음의 본체를 양지라고 본 것은 왕수인이다.

6.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을은 아퀴나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ㄱ).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는 모두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도달해야 할 당위라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는 모두 인간 본성의 완성은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

ㄴ. 스토아학파와 아퀴나스는 모두 도덕적 실천으로서 의무를 따르는 것은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7. 이항과 이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이항, 을은 이이다. 이이는 본연지성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ㄴ). 이항과 이이는 모두 사단인 사양지심과 칠정인 슬픔이 성(性)이 발현된 감정이라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이항은 칠정이 이(理)의 통제를 받으면 선한 감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이이는 하늘의 도(道)인 성(誠)을 수양의 원리이자 길로 제시하였다.

8. 애덤 스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애덤 스미스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며 각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경제 작동 원리를 강조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ㄷ.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노동할 때 자신의 노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벌린과 비롤리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벌린, 을은 비롤리이다. 벌린은 자의적 지배를 차단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극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벌린은 소극적 자유가 경제 환경의 부유함이 아닌 간섭의 부재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비롤리는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가 전혀 없더라도 지배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비롤리는 예측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에 따른 법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벌린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며 이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10.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중관 사상의 용수, 을은 유식 사상의 세친이다. 세친은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비추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ㄴ). 유식 사상에서는 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는 수행으로 요가 수행을 강조하였다(ㄷ). 용수와 세친은 모두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며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용수는 자아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공(空)하다고 보았다.

11. 흄과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흄, 을은 스피노자이다. 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나서 승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ㄴ). 스피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비인격적인 신에 대한 사랑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흄과 스피노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은 도덕감에 기초하여,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 욕구에 기초하여 선악 판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스피노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지금 일어난 사건 대신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다.

12. 원효와 지눌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돈오 이후 점수의 수행으로 정(定)과 혜(慧)를 함께 지속적으로 닦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원효는 청정한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원효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을 강조하였고 무애행을 출가 자만의 수행이라고 보지 않았다.

③ 지눌은 부처의 가르침, 즉 경전의 내용이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⑤ 원효는 선종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13. 키르케고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심미적, 윤리적 단계에서는 절망 상태에 있지만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신의 사랑에 의해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 ③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로 제시하였다.
- ④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신에게 구원을 받음으로써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으며 다른 공동체의 완전한 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듯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의 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듯이 정의로운 국가도 구성원의 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를 위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통치자가 생산자의 소유물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개인의 도덕적 능력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라고 보았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좋음의 추구라고 보았다.

15. 노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에게 타고난 선한 마음이 있다고 보았으며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억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맹자는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생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⑤ 노자는 무위의 도를 추구하였으며 예는 강조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16.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인 영지의 기호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기호라고 보았으며 영지의 기호를 성리학적 이법[理]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
- ② 정약용은 덕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 실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인(仁)을 성에 내재된 덕으로 보지 않았으며 측은지심을 시작으로 하여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모든 욕구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구를 긍정하였다.

17.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인간 영혼의 욕구적 부분에 귀속되는 덕이라고 보았다(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인 최고 목적과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인 최고선이 같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분별력인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라도 덕의 실현에 실패했다면 행복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18.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 즉 선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가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인간이 자연 세계에 속하면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이성이 인간에게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 ⑤ 칸트는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택한 의지는 도덕 법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 홉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기 보존 노력은 인간을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하며 자기 소멸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ㄴ). 홉스는 주권자는 대리인이지만 모든 시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홉스는 주권자가 시민에게 죽음을 명령했을 때 시민이 이러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ㄴ. 홉스는 국가 설립에 반대하는 자도 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20. 동학사상과 위정척사 사상의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동학사상의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 사상의 이항로이다. 최제우는 경천 사상에 기반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국안민을 동학의 지향점으로 강조하였다(ㄱ). 이항로는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성리학적 가치인 절의의 실천을 강조하였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이항로는 효제의 가르침을 강조하였으나 서양과 교류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ㄴ. 이항로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